더러움! 천국의 라이벌

(막1:21~28)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더러움! 천국의 라이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더러움이 천국의 라이벌이다.
얼른 우리가 느끼기에 천국의 라이벌하면 지옥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지옥은 천국의 반대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천국의 라이벌! 천국과 경쟁하는 원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그 섭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옥은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협조적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음식을 만들 때 생선을 샀다! 그러면 꼬리 잘라내고 지느러미 잘라내고 뭐 내장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요리에 쓰지 않는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요리에 쓸 부분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렇다면 요리에 쓸 부분을 담는 그릇과 쓰레기통은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에 요리에 들어갈 부분만을 담기 위해서는, 요리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담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섭리적인 입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천국의 협조자에요.

그런데 정말 천국에 대해서 라이벌의 위치에 서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맞섭니다, 천국의 원수노릇을 합니다.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더러움! 하면 형용사 아닙니까?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러움이라는 것은, 단지 정지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파괴력을 갖고 작용하면서 천국에 대항하게 하는 힘이 바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무섭고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힘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우리가 죄! 죄!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바로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어부 4명을 제자로 삼으시는 사건 바로 뒤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안식일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그 안식일에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제일 먼저 마가가 부각시키고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더러운 귀신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을 등장을 시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내용전개와 비교하면 특이해요, 누가복음과도 달라요.

지금 이 공생애가 시작하는 무렵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을 이사야서의 내용을 등장시키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곧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

을 첫 번째로 강하게 묘사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더러운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마가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갈라져있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받으심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셨냐 하면, 이제 사람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갖고서도 이 땅에서 그것을 의지해서 이루려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마가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점으로 전부 낚여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간 사람의 상태, 이 상태를 마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안식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천국으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등장시켜서 기록한 것은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나 누가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이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주 축약시키면서 곧바로 안식일을 들이대는 이유는, 마가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고 오셨고,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마음이 이 몸을 통해 접하는 이 세상에서 떠돌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걸 보니까- 천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안식인데, 마가는 여기서 경악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선민의 역사 2000년!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이 인간에게는 생애 첫째 날이었습

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은 생애의 처음으로 맞이한 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선민에게 허락하신 가장 특징적인 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이때에, 태초이후에 선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안식이라고 하는 그 원형과 안식의 원형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갖고 오신 천국으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에서 마가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안식의 본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으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창조 이래 제정하셨던 그 안식의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샬롬의 원형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고 사람들의 세상에서 떠돌고 다니던 그 유령 같은 마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직면해서 제일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더러움이었다는 거예요, 더러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를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귀신들린 증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귀신들린 딸을 가진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런다는 증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상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건데 그럴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더러워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다 말고, 김치를 한 움큼 손에 쥐고는 자기 얼굴에 막 처바르는 겁니다.
김치로 칠갑을 하는 겁니다.
된장을 손으로 떠가지고는 자기 머리에다가 무스 바르듯이 막 바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귀신 들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똥, 오줌을 싸놓고는 그 위에 철퍽 주저앉아 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칠갑하고 있다든지…
근데 그런 증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더러운 귀신들린 자의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그 한 사람의 더러운 귀신들려서 나타나는 그 증상을 천국 앞에 세워져 있는 세상사람 모두의 보편적인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없었다면, 그런 더러움이 문제가 안됐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린 자만의 문제였을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만의 문제였겠는데, 천국이 가까이 와놓고 보니까 이제 천국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과제를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마치 육안으로 확인될 때 더러운 귀신들린 자가,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하고 칠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똥칠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온갖 더러움을 묻히고 다니고 있고, 하는 짓마다 더러움을 더하는, 더러움 위에 더러움을 덧씌우고, 더러움을 덧씌우는 그런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이 세상과 대면시켰을 때, 세상의 특징을 어두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지경에 빛이 비쳤다!'
그런데 마가는 그 하늘나라와 세상이 딱 대면했을 때, 하늘나라 때문에 드러나는 이 세상의 특징이 더러움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더러움이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느냐?
참된 안식을 깨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게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탐욕 때문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갖고 싶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갖고 싶어 하면 갖고 싶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욕구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만드셨어요, 속을 비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왜 돈을 갖고 싶어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아주 틀렸다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하면, '분수에 넘치게'라는 것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의 크기가 분수에 넘는다는 얘기에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의 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성경적으로 욕심을 정의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나로서는 내 분수에는 바라면 안 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인 거지, 분수에 넘치도록 많이 바라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던지, 돈을 바라던, 권력을 바라던, 명예를 바라던, 인기를 바라던, 형통을 바라던, 무엇을 바라던지 적당히 바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빈낙도(安貧樂道) 라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기며 산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 돈을 안 갖고 그냥 빈 채로 놔두면서 즐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빈(安貧), 가난함에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돈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빈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처럼 속절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올바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 올바른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조시대 때에 노비의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갈 나이가 되면서 정승의 딸을 사모하는 겁니다.
장가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노비일지라도 장성했으니까.
그런데 정승의 딸을 원하는 게 이게 분수에 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돈 좀 많이 갖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왜 이 세상에서 인기 좀 많이 누리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냐 하면 그게 바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자리를 기뻐합니까? 그거 뭔지 아세요?
양복입고 머리에다가 짜장면 그릇을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통령 됐다고 사람들은 면류관 썼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만 생각하고.
근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마가가 볼 때는 어떤 상태냐 하면, 대통령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짜장면이 더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대통령자리를 즐기고 기뻐하고 거기에 심취되어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짜장면 그릇을 머리에 뒤집어 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이 돼서 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날마다 고민이고 날마다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더러움 때문에 그래요, 더러움 때문에.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싶다 할 때에,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롭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데, 왜 돈을 가지려고 할 때 불행해지냐 하면, 마음이 돈을 붙잡을 때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꾸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요.
자족이라 그러면 '아! 돈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나 그냥 이정도 선에서 만족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의 경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서도 기쁜 게 자족인데, 그러면 이 세상경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사람이건 가족이건 돈이건 명예건 인기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빈 마음으로 남아있으면서 자족한다는 애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 얘기할 때 그 자족은, 세상경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채우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서 갖고 오신 그 천국으로 마음이 갔기 때문에 세상경계 안에 있는 어떤 것의 도움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
왜? 천국은 세상경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 속해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자꾸 '욕심을 줄이라, 욕심을 줄이라' 할 때 욕구하는 마음을 줄이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마음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을 욕구하도록 지음 받은 게 마음입니다.
안성맞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맞춤 되어서 맞춤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맞춤으로 창조되었냐?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게 마음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될 그 장소에, 짜장면이 있으면 짜장면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장면을 머리에 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것들이지마는, 배고플 때 짜장면처럼.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아! 내 자식을 마음에 담으면 배부르겠구나, 아! 돈을 담으면 배부르겠구나, 내 배를 채울 수 있겠다고 믿어지는 게 선악판단의 효과라는 겁니다.
'요거면 배부를 수 있겠다, 저거면 배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더러워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욕구하는 마음을 줄이려하지 마세요.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왜 이삭을 받치라 그럽니까?

자식인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삭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담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삭이 더러운 건 아닌데, 짜장면을 뒤집어쓰는 것처럼.

마치 사장자리에 앉았다고 뻐기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은, 그 사장 의자 위에 김치를 몇 포기를 갖다 놓고는 그 위에 철퍼덕 주저앉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장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장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러워집니다.

마가가 보는 것은 천국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 이 모~든 것을 통트는 개념이에요.

통틀어서 포괄 시키는 개념입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이 갖고 오신 천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의 더러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더러움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저 차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동창네 집에 갔다가 소파를 보고 야! 나도 저런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경계 안에 있을 때, 마음은 여지없이 더러워지고 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자보다 내 마음이 더 깨끗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간 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더럽지 않아요.

마가가 보고 있는 마음의 더러움은, 천국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있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이 더러움을 해결해야 되요,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보혈! 보혈이 아니면 내 마음이 그 동안 칠갑을 하고 살았던 이 더러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세요, 아들은 짜장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짜장면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겁니다.
마음이 아들을 잡아당기면, 딸을 잡아당기면, 아내와 남편을 잡아당기면 그게 다~ 그런 천국의 라이벌로 작용하는 더러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에요.
더러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더러움 때문에 행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라이벌은 지옥이 아니라 바로 더러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그 동안 하나님 이외의 세상경계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배불리려 한만큼 더러워진 내 마음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며, 그래서 기어코 천국으로 들어가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